4. 이치대첩의 전개
   1) 권율의 거병과 이치방어진 편성
   2) 이치대첩의 전개
5. 이치대첩의 의의
6. 맺음말로 되어 있는데 말미에 부록으로 ‘이치대첩지는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글을 성명으로 덧붙이고 있었다. 그 ‘맺음말’에서 김교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왜군은 조선을 침략한 후 군량을 현지에서 조달하고자 여러 경로로 전라도 침공을 시도하였다. 임진강까지 진격했던 제6군대장 소조천융경小早川隆景은 전라도 점령의 특명을 받고 남하하여 추풍령을 넘어 금산군수 권종權悰을 패사시키고 금산을 점령하였다. 한편 전라감사를 자칭한 안국사 혜경安國寺惠瓊이 이끄는 별동대 역시 경상도 남부에서부터 팔량치八良峙·육십령六十嶺 등을 통해 전라도로 들어가려 시도하였으나 곽재우郭在祐·김면金沔 등 의병에 의해 저지되었다. 결국 그는 지례知禮의 부항령을 넘어 진안으로 들어가 금산의 왜군과 합세하였다.

왜군은 금산을 전진 기지로 하여 진안·장수·임실 일대에서 한편으로는 주민을 회유하고, 한편으로는 노략질을 하면서 전라도 수부인 전주성을 포위해 들어갔다. 전주성을 공격하기 위한 전투는 진안의 웅치에서 시작되었다. 7월 8일 웅치전투에서 승리한 왜군은 전주성까지 진격하였으나 이정란이 이끄는 이민吏民의 거센 저항과 진산에 진을 치고 있던 고경명 의병의 금산성 본진 공격에 전주성 포위를 풀고 금산으로 퇴각하였다.

이치대첩은 7월 20일 전개되었다. 왜군은 전주를 침공하고자 진산의 대둔산 초입인 이치를 넘고자 하였다. 그러나 광주에서 거병한 광주목사 권율은 이치를 선점하고 왜군의 이치 공격을 격퇴시켰다.

이치대첩은 권율과 황진의 초모에 힘입어 편성된 관군과 의병과의 연합부대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권율은 광주와 남원 등지에서 노인, 정충신 등 군사를 초모하였으며, 동복현감 황진은 그의 처남인 소황·소제 형제를 비롯하여 위대기·공시억 등을 이끌고 참전하였다. 의병으로는 김제민·황박·양응원 등이 있는데 이들은 의병을 모집하여 권율 휘하에 들어가 이치대첩에 참여하였다.

이치대첩은 권율이 지휘하는 1천5백의 군사와 소조천융경이 지휘하는 1만여명이 넘는 왜군과의 대격전이었다. 권율은 목책과 녹채·여장 등으로 진지를 구축하는 등 왜군의 침입에 철저히 대비하고 군사를 독려하였다. 권율은 험한 지형을 선점하고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왜군의 공격에 대비하였으며, 기병장 권승경 부대를 매복케 하여 퇴각하는 왜군을 급습하여 왜군을 대패시키는 등 수적인 열세를 지세와 전략으로 극복하여 대승리를 거두었다.

선봉장 황진은 강궁을 쏘아 다수의 왜군을 쓰러뜨리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워 전세를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치대첩진의 지휘부에는 황진 이외에도 후군장 황박과 편비장 위대기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무과 출신자가 있어 이들 무장의 활약으로 10배 이상의 왜군의 거센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이치대첩의 승리는 전라도의 보위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치대첩에서 패배한 왜군은 급기야 전라도 점령을 포기하고 금산에서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평양에서 군량을 기다리던 소서행장小西行長 역시 결국 조명 연합군의 화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에 전라도는 아군의 군량과 병력을 동원하는 기반이 될 수 있었으며, 이치대첩 승리의 공으로 전라도 관찰사 겸 순찰사가 된 권율은 군사를 모아 북상하여 이후 독성산성 전투와 행주산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서울을 수복케 하였다. 이처럼 이치대첩은 임진왜란 초기 육전에서의 전세를 뒤엎는 전기를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록 ‘이치대첩지는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야 한다’에서 김교수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이치대첩지梨峙大捷址는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에 소재하는 전적지이다. 이치는 대둔산의 중허리에 위치한, 배재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완주군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전략상으로 중요한 곳이다.

이치대첩은 1592년 7월 20일 광주목사 권율權慄과 동복현감 황진이 이끄는 관군과 의병의 연합군 1,500여명이 이치에 진지를 구축하고 금산성에서 전주를 향하고자 이치에 물려든 소조천융경小早川隆景이 거느린 2만여명의 왜군을 물리친 승첩을 말한다.

이치대첩의 승전은 임진왜란 초기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기여한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왜군은 이치전투의 패배로 곡창지대인 전라도 진입을 할 수 없어 군량미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 결과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소서행장小西行長을 대장으로 하는 왜군의 전력이 약화되었으며 또 명군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전쟁의 국면을 역전시켰던 것이다.

이치대첩은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로 꼽힌다. 이긍익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 의하면, 왜군 측에서는 3대첩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치대첩을 첫째로 쳤음을 알 수 있다.

‘적중에서 조선 3대첩을 말하는데 이치의 승리를 첫째로 쳤다. 논평하는 이가 말하기를 이 승리가 없었으면 왜적은 반드시 호남 전체를 유린하였을 것이라 하였다. (연려실기술 권16, 권율행주지첩權慄幸州之捷)’

권율 역시 사위인 이항복에게 자신이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으나 이치대첩이 최고이고 행주대첩이 그 다음(이항복, 백사집 권6, 잡저)이라고 회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율은 이 전투에서 ‘능히 천명도 안 되는 약졸로 10배나 되는 사나운 적을 당해내고, 마침내 호남을 보전하여 국가의 근본이 되게 하였다’고 이치대첩의 의의를 평가하였다.

이치대첩에서 패배한 왜군은 전라도 점령을 포기하고 금산에서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평양에서 군량을 기다리던 소서행장 역시 조명연합군의 화의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에 전라도 지역은 병력과 군량을 동원하는 기반이 될 수 있었으며, 권율은 군사를 모아 북상하여 독성산성 전투와 행주산성 전투를 승리하여 서울을 수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치대첩은 임진왜란 초기의 육전에서 전세를 바꾸는 획기적인 승전으로 임진왜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에 충분하다(최영희崔永禧 교수의 ‘임진왜란사壬辰倭亂史에서 이치대첩梨峙大捷의 의의’, 임진왜란과 이치대첩,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9 참조).

이치대첩지는 이미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행주대첩지나 진주대첩지보다 앞서는 임진왜란 최초의 육전승전지로, 국란극복의 역사적 현장으로 성역화되어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이치대첩지는 매년 8월에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성지순례코스의 하나로 선정되어 현지 탐방이 행해져온 바 있다.

이치는 대둔산을 넘어 전라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다. 마치 호리병과 같이 생긴 지형에 가파른 언덕이기 때문에 자연성곽과 같은 천연요새이다. 이치대첩지가 성역화되어 전략연구자들의 탐방지로, 나아가 청소년들의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사진 · 글 權奇允>

한국성씨총연합회 정기총회

黃相得총재 재추대로 연임

▲ 씨족총연합회의 정기총회에서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성씨총연합회韓國姓氏總聯合會가 2월 27일 11시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소재 ‘거구장巨龜莊’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개회의례에 이어 효행과 공로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효행에 김아자金雅子외 7인, 공로에 안산이씨安山李氏 종회장 이양제李亮濟외 7인, 공로대상에 진주강씨晋州姜氏 회장 강현송姜顯松외 1인이 수상하였다. 대상을 받은 강현송 회장과 전주이씨의 이용규 회장이 소감을 발표했다.

황상득黃相得 총재가 내빈소개를 하고 개회인사말을 하였고 내빈의 격려사는 한나라당의 전최고위원 김학원金學元 전의원이 대표로 하였다. 김학원 전의원은 과거 국회에서 호주제를 폐지하는 호적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코자 노력했던 점을 밝히고 지난 연말연시에도 지인들과 만나면 호적법 관계의 화제를 나누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혼한 자녀의 성본 문제에서, 예컨대 ‘김학원이가 이학원이도 되고 전학원·박학원으로 바뀌어서야 되겠는가? 여기에는 민족의 미풍양속과 전통을 해치려는 악의가 개재되어 있으므로 이제 남성보다 여성이 나서야 할 때 라고 역설하였다.

이어 총회의 안건 처리에서 백영운白永雲·천용봉千龍鳳 감사가 나와 감사보고를 하고 2008년도 결산안, 2009년도 사업계획안, 2009년도 예산안이 낭독보고되었다.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산내역은 수입과 지출이 각기 8천3백여만원이고 2009년 예산안은 세입·세출이 각기 1억2천7백여만원이었다. 2009년도의 사업계획은 조직확대 및 각 성씨종중과의 연락망 확충을 위해 회원의 배가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부 조직을 확대 강화하며 지방조직의 설치를 추진하는 등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부계성본 계승과 성본 불변의 원칙 복원을 위한 민법 재개정 등의 추진, 소속 종파와 성본 바로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성명의 한자표기운동을 전개할 것 등이 망라되어 있었다. 한편 씨족총연합회의 사단법인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온 바 지난해에 이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 아니라는 회답을 받아 이를 다시 숙고한 끝에 ‘한국성씨총연합회’의 명칭을 ‘한국뿌리문화보존회’로 바꾸어 문광부에 재신청을 했다 하였다.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개선에서는 황상득 현총재를 만장일치로 재추대하였다.

<사진 · 글 權奇允>

제민한의원濟民韓醫院

동통疼痛·성장비만成長肥滿·비염鼻炎 전문
창원시 소계동 713-19
055) 255-3088
e-mail : daehano815@daum.net

원장 권해원權海元
016-297-9065
서울 중산고中山高 · 대구한의대 한의학과졸, 도동보건의료원 한방과장 · 부림한방병원 진료과장 · 보현의료재단 한방병원장 경력